

10

월의 양돈관리 포인트

소독 열심히 하시죠? 근데 왜 하세요?

벌써 날씨가 많이 쌀쌀하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계절이다. 바야흐로 환절기이다. 사람들이 활동하기는 좋아도, 돼지에게는 참 힘든 계절이다. 일교차가 커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때부터는 윈치 관리도 신경을 써야 하고, 돈사가 건조해지므로 소독도 열심히 하여야 할 계절이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는 소독을 안하면 무언가 불안하게 되었다. 아마 구제역 사태 이후로 생각되는데, 언론 매체마다 돼지고 돈사 내부고 간에 소독약을 듬뿍 뿌리라고 홍보하는 바람에 그렇게 안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걸로 강박관념 비슷한 것이 생겨났다. 오늘은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소독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점검해 보자.

소독. 잘하면 보약 잘못하면 독약

습관적으로 돼지가 들어있는 돈사 내부를 소독약으로 뿌리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소독을 하면서 환경개선제, 미생물제는 사료고 음수고간에 많이 들어 있다. 이런 균들은 대부분 돼지에 유익한 균들인데, 문제는 외부 환경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죽는다는 것이 단점이다. 돼지가 들어있는 돈사 내부를 소독하면, 돼지에게 유해한 병원성 미생물들보다 이런 유익균들이 먼저 죽는다. 병원성 미생물들은 소독제나 항생제등에 내성이 생긴 경우도 많아서, 오히려 안 죽는 경우도 많다. 특히 소독제라는 것이 돈분 내부나 먼지 사이에 있다면 죽지 않고 살아남을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 또한 미생물들은 경쟁 배제의 원칙하에 살게 되는데, 소독을 하면서 유해균을 더욱 증식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쟁 배제라는 것은 많은 종류의 미생물들이 한 곳에 있다면 숫자가 많은 미생물들이 번식을 왕성하게 하여, 숫자가 적은 미생물들이 살지 못하는 원리를 말한다. 소독으로 유익한 균들이 증식을 하면, 유해한 균들만 돈사 내부에 남아서 증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소독을 열심히 하니깐 돈사 냄새가 더 나더라는 농장주를 한 번 만난 적이 있는데, 소독을 안하니깐 오히려 냄새가 줄더라고 하신다. 경험적으로 이 원리를 채득하신 거다. 대개 환경 개선제는 돈사내부의 냄새 제거를 위해서도 사용하는데, 소독으로 이런 유익균들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돈사내부에 돼지가 있는 상황이라면 굳이 소독제를 뿌리는 행위는 줄여야 한다. 병이 돈사 내부에 돌고 있거나 특별히 질병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김 경 진 원장
돼지와 건강 수의그룹

라면 돼지가 있는 상황에서는 소독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다만 돈사가 건조해서 문제라면 물만 뿌리는 행위도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

언제 잘해야 하나?

소독을 정말 잘해야 하는 건, 돼지가 모두 빠지고 새로운 돼지를 받을 때이다. 많은 농장들이 오수 처리의 문제 때문에 수세는 건성건성으로 하고 소독제를 강하게 뿌리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소독제는 뿌리는 곳에 유기물(돈분, 먼지 등)이 존재하면 효과가 급격히 떨어진다.

특히 비육장의 경우는 똥딱지를 제거하기가 어려워져서, 대충 수세하고 소독제를 많이 뿌리는 경향이 강한데, 이는 정말 잘못된 습관이다. 특히 이전 돼지들에서 질병이 있었다면, 정말 수세에 신경을 써야 한다. 돈사 내부의 똥딱지, 먼지 등에 병원체들이 많이 남아 있으며, 소독제만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 돼지에 소독제를 뿌리나?

돼지에 소독제를 도포하는 농장도 많다. 사실, 돼지에 소독제를 포함한 물을 뿌리는 행위는 돼지에게 기침을 하라고 기도하는 것과 같다. 돼지에게 소독제를 뿌리는 행위도 구제역 이후에 유행이 된 것 같다. 현대 돼지의 피부에 수분이 닿으면, 이를 말리기 위해서 돼지는 체열을 발산해야 한다. 특히나 환기량이 많은 무창 돈사에서는 바람이 있어서 체열을 많이 빼앗아 가기 마련이다. 그러면서 돼지는 추위를 타게 되고, 그럼 기침을 하기 마련이다. 돈사에 호흡기 문제가 있어서 열심히 돼지에게 소독제를 뿌리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정말 안쓰러운 일이다. 오히려 호흡기 문제를 더 일으키는 꼴이기 때문이다. 돈사 내부에 물을 뿌릴 때에는 돼지에게 안 닿도록 최대한 공중 분무를 하고, 그 양도 최소



〈사진 1〉 수세와 소독 불량. 수세는 건성으로 하고 소독제를 강하게 뿌리는 농장이 많다. 소독의 효과는 매우 적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소독된 돈방에 돼지를 입식하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은 무리이다.

화 하여야 한다. 특히 호흡기 질병이 있다면 정말 주의해서 조금만 뿌리도록 하여야 한다. 오히려 벽이나 바닥에 뿌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래도 습도 문제는 많이 해결된다.

어떤 소독제 쓰고 계시나요?

간혹 용도에 안 맞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다. 바이러스를 없애려면 팜플로이드와 같은 산성 제제를 필자는 많이 사용한다. 4급암모늄 제제와 기타 제제들은 못 죽이는 바이러스들도 있기 때문이다. 용도에 맞는 소독제를 쓰는 것도 중요하다. 대부분의 소독제들이 만능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 실제로 만능은 없다. 선전만 그렇게 하고 있을 뿐이다. 소독제의 선택은 전문 수의사와 상담해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한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소독이 늘어나는 계절이라서 몇자 적어 보았다. 점차 양돈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좋은 파트너(좋은 사료 공급자, 좋은 약품 공급자, 좋은 전담 수의사등등)를 만나야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오늘은 평소 느꼈던 소독의 문제점들 몇가지를 언급하고 마친다. **양돈**